중소벤처기업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<전매체> 11. 3.(목) 배포즉시	-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관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순배 (044-204-7420)
		담당자	서기관	정강은 (044-204-7421)
			사무관	김민수 (044-204-7422)

중소벤처기업부,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위한 긴급회의 개최

□ **미국의 금리 인상** 등 **3고(高) 복합위기 장기화 조짐**에 대한 **선제적 대응**을 위해 **장관 주재 긴급회의 개최**

□ 최근 **거시경제 동향**뿐만 아니라 **실물경제의 주축**인 **중소·벤처·소상공인 분야별 위험(리스크)**을 진단하고 향후 전담조직(TF) 운영을 통해 **대응방안을 모색**할 계획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3일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(2일, 현지시간) 등 **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**와 **복합위기 장기화 조짐**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**긴급회의를 개최**했다.

미국 연방준비제도(FRB)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**국내 기준금리(현(現) 3.0%) 상승**으로 이어져, **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회복**에 **어려움을 가중**시킬 수 있다. 특히, 작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은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

* 시중은행 평균 중소기업 대출금리(한은): ('22.1Q) 3.56 → ('22.2Q) 3.84 → ('22.3Q) 4.65
**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잔액(조원): ('19.12) 947 → ('20.12) 1,100 → ('21.12) 1,260 → ('22.9) 1,393

또한, 23개월 연속 증가했던 **수출**이 **10월부터 감소로 전환**됐고, **무역 수지**도 **7개월 연속 적자**(4~10월)를 보이는 등 물가·금융·환율 부문에서 시작한 복합위기가 실물 부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.

아울러, 다수의 **시장 전문가**들이 올해보다 **내년에 상황이 더 악화**될 것으로 **예측**하고 있으며, **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하락**하는 등 중소기업 **현장의 분위기**도 **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려**하고 있음이 뚜렷하다.

*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: '22년e 2.8%, '23년e 2.2% (OECD '22.9월 발표)

**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2.8포인트(p) 하락한 82.3 예상(10월 85.1→11월 82.3)
(100 초과 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음을 의미)

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, **이영 장관**은 **'중소벤처기업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'**를 **소집**했다.

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**복합위기**가 **글로벌 고금리·강달러**로 인해 **장기화될 조짐**이 보임에 따라, **추후 중소·벤처기업**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**잠재적 위험(리스크)**를 **진단·점검**하고, **선제적으로 준비**하기 위한 목적이다.

금일 회의에서는 **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**하고,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을 위한 **전담조직(TF) 운영계획**, 그리고 중소기업, 창업·벤처기업, 소상공인 **대상별 위험(리스크) 진단 및 향후 계획**을 **논의**했다.

이영 장관은 "지난주 **비상경제민생회의**에서 조선, 이차전지 등 **주력산업의 실적 개선**과 **초격차 초기창업기업(스타트업) 육성과 같은 중소·벤처기업의 신성장 동력화**가 **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과제**로 **중점 논의**됐다"며,

"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**내년에 경제위기**가 **현실화**된다면, 중소기업은 성장보다 **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**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"고 복합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.

아울러 "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'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전담조직(TF)'를 통해 **위험(리스크) 진단**과 **맞춤형 대응 방안 논의**를 지속하고, **발굴된 과제**를 바탕으로 **내년**에는 **디지털 전환과 위험(리스크) 대응**을 **양대 축**으로 **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**"이라고 정책의지를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